농협개혁위원회, 농민단체가 주도해야 한다

1. 초기 농협개혁위원회 구성안

400만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참여정부 마저 협동조합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이후 협동조합개혁 여론은 갈수록 열기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는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 농협개혁과제 선정과 개혁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될 농협개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위원회에 참가한 농민단체와 농협조합장, 농협중앙회 임원, 학계 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농협개혁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의견충돌을 보이면서 파행으로 치닫게 되어 앞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초기 농협개혁위원회는 한농연을 비롯한 참여 농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여 농민단체장 8명, 조합장 6명, 학계 및 전문가 5명, 농협중앙회 임원 2명으로 총 21명이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농협개혁위원회를 뒷받침할 실무기획단은 농민단체 4인, 농협 3인으로 구성되었다.

농민단체들이 위원 구성에서 농협과 같은 수로 맞추고 실무기획단은 한 명 더 많게 하려고 주장한 것은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던 각종 위원회가 충분히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숫자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회의를 준비하는 실무기획단도 주로 농협에 맡겨져 준비 단계부터 농민의 입장이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농협개혁위원회에 참가 예정인 위원 명단

□ 농민단체(8명)

송남수 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현찬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춘성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인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최준구 대한양계협회 회장

□ 농협(8명)

김기선 경기 용인 구성농협 조합장, 윤용호 충

◀ 지난 4월 28일 '농협개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전국농민연대(준)는 농민단체장이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함을 명백히 밝혔다.

북 진천농협 조합장, 김후진 경북 상주 중화농협 조합장, 최덕규 경남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 황금영 전남 순천축협 조합장, 박종재 광주 원예농협 조합장, 박석휘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이건호 농협중앙회 교육지원사업 상무

□ 학계 및 전문가(5명)

박종수 충남대 교수, 김완배 서울대 교수, 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장, 김충실 경북대 교수, 김영철 건국대 교수

2. 농협개혁위원회 구성상의 문제점

한농연은 지난 4월 10일 협동조합개혁과제로 20개 주제를 제시하였다. 한 주제 아래에는 몇 가지 개혁과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로는 60~70여 개에 이른다. 이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농협개혁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농연과 전국농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농협개혁위원회 운영 방안을 1차 회의에서 명백히 밝혔다.

▲ 농협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민단체의 대표로 한다
▲ 위원회는 단일안 마련을 기본으로 활동하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제로 한다
▲ 위원회 운영기간은 개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 회의 전 과정은 영상촬영 및 녹음, 기록을 요구한다
▲ 모든 회의는 농민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가 배석한다
▲ 간사는 농협에서 하고 회의록 등 공식문서는

농민단체의 실무자와 같이 검토하여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그러나 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개혁의 가장 큰 주체인 농민단체에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전국농민연대 소속 단체장들의 강력한 주장과, 조합장과 농민단체가 공동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농협의 주장이 대립되면서 1차 회의부터 난항을 겪게 되었다.

농협은 회의 초반에 학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농민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해야 한다는 전국농민연대의 완강한 주장에 밀려 조합장과 농민단체가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농민단체 입장에서 농협의 이와 같은 공동위원장 선임 주장은 결과적으로 농민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 강도를 반감시키고, 이전의 관행을 조금이라도 덜 침해 받고자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치졸한 제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개혁의 대상인 농협이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과연 어떤 개혁의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3. 향후 농협개혁위원회 구성 전망

농협개혁위원회는 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농협개혁의 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농민단체와 농협간 합리적 대화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농협으로서는 농협개혁위원회가 앞으로 농민단체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며, 가장 객관적 의견을 수렴해가며 자발적인 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임을 명심하고 최대한 농민단체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스스로 자기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농협은 위원회 구성의 첫 번째 관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위원장 선임 문제를 농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농협이 지금과 같이 계속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 포석만 놓으려고 한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농협개혁위원회 구성은 과거 농민단체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며 농협개혁의 바람막이 역할만 했던 2001년의 농협개혁위원회 역할을 답습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농협개혁위원회 구성의 꿈은 물거품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한농연

공 고

시 · 군 · 읍 · 면 · 동 회장님!!
농가부채 설문지를 5월 26일까지 중앙연합회로 보내주십시오!!

□ 농가부채 대책 보완과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농가부채 설문조사를 오는 5월 26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한농연중앙연합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농가부채 설문지는 한농연 홈페이지(로그인 후 회원마당→회원자료실)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참여가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보낼 곳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번지 한농연회관 2층 정책 조정실

• FAX : 02-3401-6549
• 문의 : 02-3401-6543 정책 조정실 임준제 대리